

켈른大學의 어제와 오늘

金 鴻 振

(崇田大 獨語獨文學科)

1

독일의 대동맥 라인강의 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쾰른시는 그의 오랜 역사로 유명하다. 위압적으로 높이 솟은 두 개의 첨탑을 이고 있는 고딕식의 대성당은 바로 이 도시의 산 역사요, 의미 깊은 상징이다. '켈른(Köln)'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라틴어의 'colonia'에서 유래된 것으로 시저가 인솔하는 로마군단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게르만 이주자들을 받아들여 이른바 '식민지'를 설치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쾰른은 알프스 이북에서는 유일하게 서력기원전에 탄생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셈이다. 지금도 이 도시의 명물인 로마-게르만 박물관에는 로마의 역사와 기억이 그때의 유적과 유물을 대체로 온존되어 있다.

실제로도 쾰른의 오늘과 내일은 어제의 쾰른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 도시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분위기 속에는 2000년의 세월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테는 일찌기 슬피츠 부아세레와의 대화에서 쾰른은 "과거와 현재가 엉켜 있고 옛 것과 옛날옛적 것이 오늘의 문화와 축제, 그리고 예술 속에 공생하며, 두고 두고 새롭게 체험되는" 도시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역사는 무어라 해도 기독교와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다. 5세기경에 로마의 관리들이 마지막

으로 떠나고, 로마군단의 행진하는 발걸음소리가 사라진 후에 프랑켄 사람들이 쾰른을 점령함으로써 왕년의 식민지는 프랑켄왕들의 수도로 승격되기도 하였고, 795년에는 카알대제에 의해 카톨릭 대교구로 선포됨으로써 쾰른의 대주교는 종교상의 군주일 뿐만 아니라 세속의 군주로서 이 도시와 150개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 종단을 건립했고 이 도시를 서독의 종교적·정신적·예술적 생활의 중심지로 만든었다. 뿐만 아니라 1164년에는 프리드리히 바바로사황제가 聖三王의 유품을 선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예수의 가시면류관을 유품으로 가지고 있는 파리와 함께 기독교의 상징을 보유하고 있는 순례지로 각광을 받기도 한다. 쾰른이 성삼왕의 유품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세계 각처로부터 순례객들이 문려 오는 聖都가 되어 'sancta colonia'라는 명칭이 붙게 된다. 'sancta'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게만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던 것이었으나 이제 라인강가의 쾰른도 이 수식어를 받게 되어 덩실공히 티베르강가의 '영원한 도시' 로마와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삼왕의 유품을 경배하기 위해 순례객들이 이 도시에 쇄도하자, 종파에 있던 성당은 험소한 감을 주게 되었으며, 급기야 1248년에 신축이 시작되었다. 600년에 걸친 작업 끝에 1880년 준공을 보게 된 오늘날의 쾰른 대성당은 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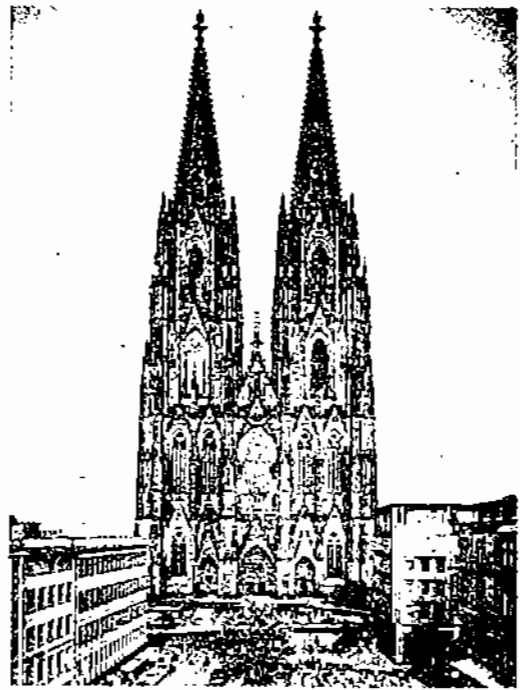
기독교의 종교적 상징인 문만 아니라, 고딕식 건축물의 전형으로서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문만 아니라 쾰른은 중세에 있어 교육과 학문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일찌기 탁발승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미니카교단이 이곳에 '게네랄 슈부더엔'이라는 교단대학을 세우고 독일 최초의 대학교수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그의 제자인 스콜라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뒤를 이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의와 인식을 연결시킴으로써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을 꾀했다. 그 밖에 신비주의자요, 유명한 설교사인 마이스터 엑하르트가 'Lesemeister'로 활약하면서 최초로 독일어로 철학은 강의한 곳이 바로 이 쾰른이다.

2

애당초 도미니카 교단이 설립했던 교단대학 '게네랄 슈부더엔'과는 달리 오늘의 쾰른대학은 1388년 쾰른 시민들의 주도로 세워진 대학이다.

일찌기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의 쇄도는 간접적으로 이 도시를 부강케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제에 밝은 쾰른시민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여 대주교나 국왕들에게 돈을 빌려 주게까지 되면서 시민들의 자의식은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의식의 성장은 대주교와의 시의 주도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까지 발전하여, 마침내 1288년 쾰른 시민들은 불령전투에서 교회군주를 물리치고 시의 지배권을 장악한다. 그리하여 '교회군주들은 쾰른 밖으로 밀려나 본이나 브뤼에 근방에서 기 동안 침거하게 된다. 이때부터 시민들은 시 행정의 고삐를 쥐게 되고 자신들의 도시를 자력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100년이 지난 후에 독일 최초의 시립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대학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각국의 대학의 경우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군주들에 의해 세워진 관립대학(Landesuniversität)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영토가 속한 사람에게 종교도 속한다(cujus regio, e jus religio)"는 원칙이 대학 설립



▲ 쾰른의 산 역사요, 의미깊은 상징인 쾰른 대성당

에도 적용되어 교회와 함께 대학도 국가 권력에 예속되어야 다당하다는 정치적 지배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권력의 예하기 관으로서의 독일 대학의 특성은 대학 및 대학인을 불가피하게 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의 주도로 세워진 쾰른대학은, 대부분의 독일 대학이 아직도 그 창건자인 군주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고 있는 데 반해, 최초의 독일인 대학교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이름을 따라 교명을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운영 면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보여 주었는데, 그 인 에르 범과대학에서는 독일에서 최초로 교회법과 병행해서 로마법의 강의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이 대학의 설립을 허가한 교황 우르반 6세는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 이유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들은 세심한 배려와 검토 끝에 쾰른시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쾰른시장과 참신한들, 그리고 우리들의 은혜를 중성스럽게 간구한 시민들과 교회의

갑슨한 진정을 무자의 강으로 재미있 있게 받아들이는 바이다. 신의 영광과 올바른 신앙의 창탄을 위하여 쾰른시대에 모릅지기 파리대학을 표본으로 한 대학이 임인히 존립하기를 사도적 권위에 힘입어 지립하는 바이다.”

이 대학이 설립되자 교황의 칙령에 언급된 바대로 쾰른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학생들이 문과와 처음에는 쾰른 출신의 학생수는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쾰른의 우트베히트나 뵘기에의 퓨티히 같은 타지방 출신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빈족적, 종교적 경계가 생기고, 경쟁이라도 하듯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세로 설립되면서 쾰른대학의 비력도 줄어들었다.

3

교황의 쾰른대학 설립허가에서 파리대학을 표본으로 지적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독일과 그 이웃인 동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출작아 1세기 반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대학에 유학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대학은 그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의 모범적인 기구나 운영 등에 관해 의식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던 선례를 가지고 있다. 카알 4세가 세운 독일 최초의 대학인 프라그대학 설립취지문에서도, 표본대학으로서 파리대학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파리대학은 일찌기 교수나 학생들이 국왕으로부터 특권과 자유를 보장받아 국가나 교회의 요구와 간섭에 대항하여 ‘학문 자유의 구현’을 모토로 하여 설립된 대학이었다. 그러므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같은 종교적 교단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였고,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 대학 출신의 교수는 “대학은 성직자의 學寮가 아니라 학문하는 사람들의 학교”라고 말함으로써 대학의 사명은 학문연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신학교수들의 조합을 모체로 성립된 파리대학은 중세에 있어 전 유럽의 대학 조직의 모델로서 특히 독일과 영국의 대학에 큰 영향을 주었

다. 파리대학은 1150년경에 창립되어 처음에는 신학과 철학에 중점을 두어 연구·교육하였으나 16세기에 이르러 대학조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몇 개의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파리대학’으로 명명된 것은 1896년에 와서였다.

파리대학 설립시 확인된 대학의 원칙, 즉 대학이란 학문연구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합되고 조직된 교수와 학생의 공동체인 ‘교수와 학생의 조합(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이라는 대학의 자체 이해가 유럽 대학에서 미시금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의 경영 집단이 아닌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대학은 힘대와 제도 설립에 있어 조합적인 자치권 창출하있는 바 이 자치는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과는 다른 독특한 심격을 지니게 되었다. 즉 조합의 회원들 가운데 총장이 선출되며 이 총장은 대학관리권과 소속원에 대한 독자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똑같은 절차를 통해 선출되는 학장을 위주로 학과의 연구분야 편성이 이루어지고 대학의 시험권, 박사학위 수여권, 교수자격 수여권 등이 자치적으로 행사되었다.

이와 같은 파리대학의 제도와 기구를 모방하여 발전해 온 쾰른대학에서 1468년 그 대학을 설립한 시 의회가 교수 한 명을 자의로 임명하려 하자 교수 전원이 불만을 품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겠다고 시를 위협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교황이 대학을 후원하고 시 의회가 후퇴함으로써 말미암아 교수들의 의지가 관철되었으며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것은 대학이 국가나 설립자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고 교회나 국가의 권위에 대항해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처럼 그 당시 교수와 학생은 지극히 지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을 떠나 어디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들이 살고 행동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쾰른의 예처럼 대학이 국가와 교회의 압력과 강권에 대항하여 대학을 해체하거나 강의를 중단한다거나 다른 도시로 옮겨 가겠다고 위협한 예는 여러 차례 있

었으며, 또한 이러한 위기는 쾰른의 경우처럼 위함으로만 끝나질 않았다. 실제로 프라그대학의 경우, 당시 국왕 벤켄이 대학 입학에 제코인에게 특혜를 베풀어 제코인 학생의 수가 우세하여 지자 이를 방편할 수 없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라이프찌히로 이주하여 라이프찌히대학을 창설한 적이 있고, 1229년에는 선술지에서 시작된 도시 및 주교와 중정과의 분쟁을 못 참아 파리대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파리를 떠나 오를레앙과 앙제로 이주해서 그곳에 대학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4

1468년 교수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시 의회와의 분쟁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던 쾰른대학도 내부의 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으로 폐교가 되는 불운한 운명을 겪게

▼ 시민의 주도로 세워진 쾰른대학은 최초의 독일인 대학교수 알베르트투스 마그누스의 이름을 따라 교명을 정하고 있다.



된다. 1797년 프랑스의 혁명군은 쾰른시를 점령했고 1798년 나폴레옹은 그 당시 쾰른대학 총장인 페르디난트 프란츠 빌리프에게 프링스헌법에 대한 선서문 요구했다. 빌라프 총장이 이를 거절하자 강권적으로 대학은 해체되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폐전 후 1815년 빈공약에서 쾰른시는 프로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1818년 프로시아의 라인 지방에 새로운 대학 설립계획에 따라 쾰른은 이웃도시인 본과 경쟁을 벌였으나 대학설립권을 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1879년, 쾰른시는 종합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으로서의 상과대학 설립을 위한 건의서를 프로시아 국왕에게 제출했고 1901년에는 국왕의 허락을 얻어 독일 최초의 독립된 상과대학이 쾰른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프라그, 빈, 하이덴베르크에 이어 독일에서 네번째로 창립된 쾰른대학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폐교된 지 121년만인 1919년에 프로시아 정부의 재가를 얻어 재건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초대총장을 지낸 재정학자 크리스티안 에케르트와 당시 쾰른시장이요, 2차대전 후 서독 수상을 역임한 콘라트 아데나우어의 노력이 각별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쾰른대학의 원래의 캠퍼스는 쾰른 시내 성당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나 1932년에 현재의 위치 린덴탈과 플츠로 옮겨졌고, 쾰른시도 끝내는 대학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치 못해 1963년에 대학 운영권을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주정부에 넘겨 주고 말았다. 현재의 쾰른대학은 서독내에서 네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대학으로 7개의 단과대학에서 37,0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연방주의 대학법이 통과됨에 따라 쾰른대학도 기구와 조직이 개혁이 되어 종래의 총장직은 총장회의로 바뀌고 대학 평의원회는 대학회의로 개칭되어 교수·조교·학생대표가 참석하게 되며 종래의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 운영이 여러 개의 전공 분야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독립운영되던 라인란트 교육대학 쾰른분교가 쾰른대학에 통합되어 전부터 있던 경제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에 교육대학과 분자유교육치료대학 등 7개의 단과대학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권문대학의 입학조건이나 절차는 서독의 다른 대학과 동일하다. '아비투어(Abitur)'에 합격하면 원칙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나, 최근처럼 입학지원생의 수와 대학의 수용 능력의 차이가 클 때는 학과에 따라 '정원 제한'이 있다. 특히 의학이나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해야 하고 그분 위해 특정한 시설이 필요한 학과일 경우와 졸업 후에 취업 전망이 밝아 많은 지원자가 몰리게 되는 학과의 경우에 입학 경쟁이 심한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다. 정원 제한이 있는 학과의 입학전형에는 아비투어 성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성적이 같은 경우엔 아비투어를 치른 연도가 오래된 학생이 우선권을 가지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즉 작년엔 아비투어에 합격해서 의과에 지원을 했는데 성적 미달로 입학허가를 못 받았을 경우 1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동일한 학과에 입학허가를 신청하면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옛 아비투어에 합격한 학생보다 경쟁에 유리한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출산율이 높던 해에 출생한 학생들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오면 따라 일반적으로 '정원 제한'이 적용되는 학과의 수가 늘고 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을 한 후 우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학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문의 입문이나 기초 과목을 청강하거나 연습하게 된다. 독일 대학의 수업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들 수 있는데, 주입식 방법인 강의(Vorlesung)와 토론식 방법인 세미나(Seminar)와 연습(Übung)이 그것이다. 강의는 피동적인 수업방법으로 청강만 하면서 지적 지평을 넓히고 학문적 자극을 구하는 데 그 의미가 있고, 세미나나 연습은 능동적 수업방법으로 학생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3~4학기 동안은 '푸르 세미나'에 참석한 후 중간시험을 치르고 '하우프트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4~5학기 동안 '하우프트 세미나'에서 전공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대개의 경우 8

학기 후에 졸업시험을 치르게 된다. 졸업시험의 종류에는 대학시험(Universitätsprüfung)과 국가시험(Staatsexamen)이 있는데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자격 내지 학위에 따라 두 시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Magister'학위를 얻고 싶은 학생은 대학시험을 치르게 되고, 교사자격이나 'Diplom'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은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방법은 전공과목의 논문이 통과된 후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보게 되며 시험과목은 교사자격의 경우 2개의 주전공을, 'Magister'의 경우는 논문을 쓰게 되는 주전공 한 과목과 구두시험만 보게 되는 부전공 두 과목을 택해야 한다.

박사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규정상으로는 'hochschulreif'(우리나라의 고졸 학력)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졸업시험을 마치고 Magister 학위나 교사자격 내지 디플롬을 취득한 학생에게 부여된다. 박사후보자(Doktorand)가 되는 길은 물론 본인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겠으나 졸업시험 성적이 '우(gut)' 이상이어야 하고, 대개의 경우 교수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박사 후보자가 되던 지도교수(Doktorvater)와 협의하여 박사논문(Dissertation)테마를 정하고 지도교수의 학문적 지원을 받아 논문을 완성한다. 논문이 완성되면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박사시험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는 주전공과 제 1부전공, 제 2부전공 분야에서 취득한 세기나 증서가 있어야 하고 철학박사의 경우 독일인은 '고급라틴어 증명서(Großes Latinum)'를, 동양인은 '고전중국어 증명서(Großes Sinikum)'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은 주심과 부심에게 심사를 받아 통과되고, 통과된 논문은 8주간 학장실(Dekanat)에 공람을 목적으로 비치되었다가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 공식적인 논문 통과와 절차가 끝이 나고 구두시험의 일정이 후보자에게 통보된다. 주전공과 2개의 부전공의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그때에 비로소 학장에 의해 박사 후보자에게 박사학위가 선포된다.

권론대학의 경우 대학교수가 되는 길은 결코 험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직은 정교수(Ordentlicher Professor), 정원의 교수(außerordentlicher Professor), 전임강사(Privatdozent)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봉급 그룹에 따라 H₁, H₂, H₃로 구별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대학교수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학위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의 어려운 관문을 거친 사람들이다. 하빌리타치온이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독일인의 경우 박사학위의 경우보다 훨씬 오랜 시간과 정신적인 집중이 소요되는 연구 작업인 것이다. 하빌리타치온 논저의 데다는 박사는 문 테마와는 시메나 장르, 그리고 작가가 전연 다른 것이어야 하고 독자적인 학문 명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심사원에게 인정되어야 통과된다. 그 중에는 하빌리타치온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하빌리타치온의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교수로 재직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베니아 레겐디'를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인 것이다.

하빌리타치온을 취득한 사람은 공개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를 끝내면 대개의 경우 주정부의 문교장관이 직접 하빌리타치온 증서를 수여한다. 물론 하빌리타치온이 끝났다고 자동적으로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수의 자격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초빙(Berufung)이 있어야 한다. 지금 서독내에 험난하게 하빌리타치온을 끝내고도 초빙을 받지 못한 고급 실업자가 전례 없이 많다는 신문 보도는 대학교수가 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초빙 방법은 공개초빙인데 초빙하려는 교수의 직급, 전공분야, 요망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 광고를 통해 지원을 받고, 4~5명으로 구성되는 초빙위원회(Berufungskommission)의 추천을 거쳐 대학 소위원회(Engere Fakultät)에서 확정짓는다.

하빌리타치온이 끝난 사람은 제일 먼저 전임강사(Privatdozent), 즉 H₂로 초빙되는 게 순서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정원의 교수(außerordentlicher Professor), 즉 H₃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초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학내초빙(Hausberufung)은 금지되어 있고 굳이 학내초빙을 받으려는 교수는 타교초빙을 3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역시 정원의 교수가 정교수가 되려고 할 때에도 타교초빙이 있어야 가능한데, 놀라운 것은 정원의 교수(H₃)로 평생 정교수(H₄)가 되지 못하고 대학을 떠나는 학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정교수가 되면 강좌 보유자(Lehrstuhlinhaber)가 되고 하빌리타치온 후보자도 받을 수 있으며,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고 평생을 학문에 몰바칠 수 있는 외적 여건도 형성되는 것이다. *